

# 中 증시 활황세에 투자자 컴백... '원정개미', 공모주도 기웃

중국펀드 한 달 새 342억 몰려  
빠른 경제 정상화 수익률 기인  
국내선 공모주펀드 속속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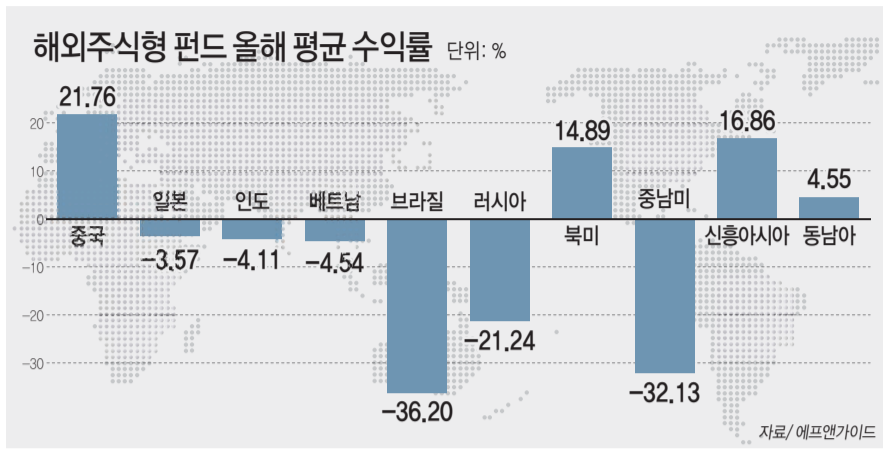
중국 본토 증시가 5년 만에 시가총액 10조달러(약 1경1470조원)를 넘어서며 직접투자뿐 아니라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 역시 주목받고 있다. 수년간 가속화됐던 자금 이탈도 최근 들어 유입세로 돌아섰다.

전망도 밝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 부양책으로 나타난 중국 증시의 강세가 고스란히 펀드에 반영됐다.

### ◆올 1.3조빠졌지만 수익률 21.7%

1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181개의 중국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21.76%로 북미펀드(14.89%)와 신흥국펀드(3.96%)를 크게 앞질렀다. 중국과 함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 증시가 끌어 올린 신흥아시아펀드(16.86%)보다도 우수한 성과다. 최근 6개월로 범위를 좁히면 31.3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동남아펀드(37.00%)와 신흥아시아펀드(32.84%)에 이어 권역별 3위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자산운



용의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급증권 전환형자투자신탁 1(주식)'이 57.52%로 올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고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심천차이넥스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 51.54%, 한화자산운용의 한화ARIRANG심천차이넥스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 51.16%로 뒤를 이었다.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제어하는 데 성공하며 경제를 빠르게 정상화한 것이 수익률에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과 북미,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주식형 펀드 성적은 좋지 못했다. 전염병뿐 아니라 정국 불확실성에다 재정위기가 지 덮치며 휘청댄 브라질은 -36.20%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신흥유럽(-26.52%), 러시아(-11.15%), 인도(-4.11%), 일본(-3.23%) 등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성과에 투자자들도 오랜만에 중국펀드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중국펀드는 후강통(상하이-홍콩증시 간 교차거래) 제도 등장 이후 투자자 시선이 직접투자로 향한 탓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한 달 사이 342억원, 일주일새 172억원이 들어왔다.

연초 이후 1조365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생각하면 반전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쪽은 올해 6936억원의 자금을 모은 북미펀드였으나 성과는 중국펀드가 더 좋았던 셈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후로 폭발적으로 생겨났던 중국펀드에서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오며 수년간 자금 이탈이 일어났으나 최근 중국 증시의 강세가 단기적 위안화 환율과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상쇄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 ◆中도 공모주가 대세

특히 중국 공모주 펀드가 유효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중국은 창업판(創業版) 개혁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자국 기술기업들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는 중국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지만 펀드 상품을 활용해 간접투자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상장된 공모주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약 183%(362개 종목 상장 후 14일 최고가 기준)로 집계됐다. 특히 과창판(科创板) 상장 공모주 165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10%에 달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중국 공모주펀드를 잇달아 출시하고 나선 이유다. 과창판 상장을 통해 사상 최대인 350억달러(약 40조)를 모집하겠다는 알리바바 금융결제사 앤트그룹(전 앤트파이낸셜)의 선언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지난달 브이아이자산운용은 중국 공모주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인 '중국본토공모주플러스펀드'를 출시했고 한국투자신탁운용도 과창판과 창업판 시장 공모주를 주로 담는 펀드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단 해외공모주 펀드는 배당소득 15.4%가 과세된다는 점과 배당소득 2000만원이 넘을 때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창판을 비롯해 중국 공모주에 투자하는 공모주펀드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창판은 공모물량의 60~70%를 기관에 배정해야 하며 IPO도 활발하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이 확대되며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의 폭이 넓어진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과창판의 주요 상장사 50곳에 투자하는 과창반 50 지수가 지난 7월부터 산출을 시작했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4개가 이달 말 상장을 준비 중이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시장 지수가 다양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ETF 개발 역시 늘어나며 중국 투자가 모멘텀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재건축 기대감? 압구정 아파트 호가 '쭉쭉'

거래는 줄었지만 매매가는 상승  
신현대 두 달새 호가 5.7억 올라

서울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강남구 압구정 일대 아파트는 여전히 상승세다.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 하는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신현대 105동(전용면적 107.16㎡)의 경우 30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8월 24억3000만원, 9월 25억9000만원에 팔리는 등 상승세다. 구현대3차(전용면적 82.5㎡)는 지난 7월보다 2억5000만원이 오른 22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실거래가도 오름세다. 한양3차(전용면적 117.26㎡)는 지난 8월 27억2000만원에 팔렸지만 9월에는 3000만원이 오른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대3차(전용면적 82.5㎡)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은 8월에는 23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단 거래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는 중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르면 압구정동은 지난달 17건, 8월 39건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로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다. 하지만 압구정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이 강세다. 6·17대책에 따라 2021년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압구정 1구역(미성1·2차, 상가통합)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는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를 받고 있다. 2구역도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를

를 받고 있다.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 역시 조합설립에 앞서 필요한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은 24개 단지 1만355가구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통합 재건축을 위한 밀그램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13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가 조합 설립을 하면서 압구정 아파트도 재건축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매매호기는 상승했다"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미래에셋운용, 연금펀드 수탁고 8조 돌파

개인연금 3.8조, 퇴직연금 4.2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전체 연금펀드 수탁고가 8조원을 넘었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3조8000억원, 퇴직연금펀드가 4조2000억원으로 각각 운용사 연금펀드 수탁고 1위에 해당한다.

1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업계 전체 연금펀드 수탁고는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1조원 가량 규모가 늘어났다.

미래에셋은 연초부터 타깃데이트펀드(TDF)를 비롯해 국내·해외형, 주식형, 채권형·혼합형 등 다양한 유형에서 1조원 넘게 자금이 유입되며 연금펀드 시장을 주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를 통한 연금자산 증식과 점차 다양화되는 연금투자자 수요를 위해 업계 최다 상품 라인

업을 통해 투자자산에서 지역까지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투자자산을 넘어 부동산 등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솔루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전체 연금펀드 시장 점유율을 25%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업계 최대 규모인 미래에셋 TDF 시리즈도 올해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연금펀드 성장을 이끌었다.

목표시점에 원금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기대수익률과 손실 회복기간 등을 고려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미래에셋의 검증된 펀드를 활용, 자산 배분 및 전략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송태화 기자

## 미래에셋대우 10억 이상 VIP고객 1만명 눈앞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9월 말 기준 10억원 이상 개인고객수가 9800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보다 35% 증가한 수치로 회사 통합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10억원 이상 개인고객의 자산규모도

39조원을 기록하며 4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1억원 이상 개인고객수와 자산 규모 역시 지난해보다 각각 33%, 30% 늘어나며 20만명과 88조원을 돌파했다.

회사 측은 VIP 고객수와 자산 규모가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배

경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량자산 공급 ▲차별화된 VIP 서비스를 꼽았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현지법인 11개, 사무소 3개를 운영하며 전 세계 우량 자산의 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

/송태화 기자

## KB증권, IRP연금저축 계좌 개설시 혜택

'1타3P' 이벤트 12월31일까지 진행

KB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타3P(연금·Pension)' 연금상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KB증권은 연말을 맞아 절세를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한 고객들 중 일정 금액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1타3P(Pension)' 이벤트를 기획했다.

'1타3P(Pension)' 이벤트는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외 주식시장 중 미국시장(뉴욕·나스닥·아멕스)의 실시간 시세, 그리고 투자정보까지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에서 KBSTAR 상장지수펀드(ETF) 전종목 가운데 매수 가능한 대상 ETF 매수 시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ETF 거래 '1일 1장 이벤트'도 12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